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23.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이 스 란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9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양 동 교 김 성 겹	전 화	044-202-3730 044-202-3735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	팀 장 담 당 자	이 지 은 이 준 석	전 화	044-202-2030 044-202-20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단기간에 끝나고 예정대로 4월 6일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는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 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도 점검하였다.
- 전국의 교회 45,420개소 중 26,104개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다.
- ☐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역별로 발병상황의 편차가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

□ 정부는 3월 22일(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 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3월 22일 전 세계 모든 항공편 입국자 9,798명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고, 유럽발 항공편 6편* 등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에 더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출발국가 기준 직항)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경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 시행 첫날인 3월 22일에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 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유럽발 항공편 6편 기준) 전체 입국자 수 1,324명, 내국인 1,221명, 외국인 103명으로 내국인 비율 92.2%

** 유럽발 항공편 6편 이외에 최초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가 포함된 숫자

- 또한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 중 6명은 어제 19시에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하였다.

- 전체 검사 결과는 집계 중에 있으며,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가며, 확진자 중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확진자는 병원으로 응급이송될 예정이다.

*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

**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3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비대면 방식 전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3. 22.~4. 5.)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오늘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브리핑 진행 중 질의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전달되며, 전달받은 질의는 최대한 현장에서 구두 답변할 예정이다.
-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브리핑을 이해해 주신 국민과 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은 인터넷 e브리핑(ebrief.korea.kr),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등에서 기존처럼 계속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오늘 기재부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후 씬머리.
1. 현재 치료약 없음. 환자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한사람은 방법이 없이 방치.
2. 치료가 되어도 일반 폐렴보다 폐손상이 많아서 폐활량 손실이 엄청크다.
3. 백신은 4월경이 되어야 나올것임.
4. 이 바이러스는 직바로 폐를 손상시킴.
5. 금년 4월까지 하나투어,모두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모두 부도. 해서 정부에 인건비 50% 보조 요청.
6. 이번달 제주 여행취소 98%.
7. 메르스는 일정지역 여행만 자제가 되어 전세계 관광에 부분적 영향. 이번것은 전세계 대상.
8. 우리나라는 4월이 peak 가 될것임.
요점은 절대 걸리지 말것. 치료되어도 완치가 아니고 폐손상이 너무 심각.

오후 1:39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